

이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올 하반기부터 부두내 장기 장치화물에 대해 시범적 반출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 터미널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선적정보가 불확실한 화물의 부두내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터미널 및 선사의 운영상 준비기간 확보, 화주의 사전 대비 등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 후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미지정화물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장치화물의 처리가 원활히 이뤄져 부두내 여유공간 확보를 통해 환적화물 등 물량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 항만의 물류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 외국 선사의 국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양부는 내다보고 있다.

제2회 대한민국 해양환경대상 시상식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대상 수상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2005년도 제2회 대한민국 해양환경대상에서 단체활동 및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총재 임병석, 썬바운팅그룹 회장)는 5월30일 한리버랜드 독섬선착장 엘페홀에서 '2005년도 제2회 대한민국 해양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해양환경대상 대상에는 제주도 북제주군청(정책연구개발 및 기초자치단체부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단체활동 및 개인부문), 진재운 부산방송 기자(언론미디어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총 3개팀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과 상패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우수상에는 (사)해양환경 국민운동조합 등 총 6개팀이 선정되었으며,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 상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임병석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해양환경대상은 꾸준한 노력과 헌

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과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활동의욕을 고취시키며 국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제정됐다”며 해양환경대상 제정취지를 밝히면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대한민국 해양환경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을 대신에 나온 최장현 차관보도 축사를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상자 명단)

△정책(연구)개발·기초 자치단체 부문 : 대상/ 제주도 북제주군청, 우수상/ 부산시 강서구청, 이수찬(태안경찰서장)

△단체활동 및 개인 부문 : 대상/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우수상/(사)해양환경 국민운동연합, 배동현(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경북본부장)

△언론 및 미디어 부문 : 대상/진재운(부산방송), 우수상/KBS제주 방송총국 해양탐사팀, KBS제주 방송총국 수중촬영팀